# 만년의 노래[1]



**이동국**
예술의전당 수석큐레이터

1) 본 원고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만드는 〈〈우리문화〉〉 2021년 5월호 잡지에 게재 글을 바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픒픕ㅂ픒픒븦ㅍ.."
"탁탁탁탁탁..."

지난 2월 18일은 지구인이 화성을 경작하기 시작하며 창세기를 열었다. 이유는 나사(NASA)의 탐사선 퍼시비어런스(Perseverance) 로버가 화성의 붉은 바람 소리며 레이저 망치와 돌의 마찰음을 지구에 보내 주었기 때문이다. 물도 말라빠진 흙과 바위로만 펼쳐진 황량하고도 광활한 화성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지구에서 4.8억km 떨어진, 그야말로 까마득한, 백마도 초인도 아직 없는 수십 억 년 전 옛날 태고의 우주 모습이다. 화성의 생명체 흔적을 찾아 나선 탐사 로버가 붉은 땅바닥에 선명한 지구 문명의 바퀴자국까지 처음으로 각인시켰다.

3월 14일은 지구촌에서도 만년의 시공을 접고 온 생명체들이 일체로 놀아나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설치작가 최정화의 〈살어리 살어리랏다〉전시무대에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퍼막공연이 올려졌다. 만 년 전 울산의 반구대 바위벽에 각인(刻印)된 시커먼 고래, 사슴, 호랑이, 멧돼지들을 최정화 작가는 오색(五色)의 네온사인 불빛으로 하늘로 불러냈다. 이날치는 간판노래인 '범 내려온다'를 고래고래 불러 재꼈다. 동물 가족들이 색색가지 네온 때때옷을 입고 바위를 박차고 나왔다. 엑스터시 상태에서 사지를 쫙 벌리고 춤을 추는 반구대 무당과 이날치가 이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었다. 무대는 만년의 시공을 오가며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였고, 관객들도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나도 눈물이 났다. 세상을 죽음의 공포로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문명병은 백신만이 아니라 만년을 오가는 이들 주술사(呪術師)들이 몸과 마음까지 치유해 주고 있었다. 시각에 호소하는 예술이 그림이라면 청각 중심의 시간예술은 노래다. 이들 그림과 노래 춤이 교차되는 미술관은 비로소 태초의 제의마당으로 환원 되었다. 근 100여년의 식민지 서구화 과정에서 나누어질 대로 나누어 진, 그야말로 동과 서, 전통과 현대가 하나로 크로스 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 관객들은 실시간 스마트폰 영상으로 온 지구 동네로 장면 장면을 퍼 날랐다.

우리는 근 100여 년의 20세기 근현대를 문명개화(文明開化)라는 미명 하에 전통과 담을 쌓아왔다. 서화는 일체가 아니라 서미술로 핵분열되었고, 장르 간의 벽도 더 두꺼워지면서 마당도 사라졌다. 가객은 가객대로 묵객은 묵객대로, 전시는 전시대로 공연은 공연대로 자기 팔 자기 흔들며 각자도생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전통이 미래이고 어제 없는 오늘 내일이 없다.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으로 나누어진 오감마저도 몸 하나에 매여 있다. 결국 문명의 진화 내지는 환원도 동과 서, 내재와 외래라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용광로 속에서 전복적으로 뒤섞인 결과물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증명해내듯 반구대 만년의 역사 전통은 그 두께와 무게만큼이나 느리고도 더디지만 우리에게 왔다. 지금 반구대 천전리 바위그림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두면 요지부동(搖之不動)의 딱딱한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 최정화 · 이날치의 '소리그림'일체의 씨앗과 만나 만년의 꽃을 피워내고, 소리와 몸짓을 불러내면서 예술의 내일을 밝혀주었다.

그런데 그 비법은 알고 보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일상에서 예술이 태어나 살고, 전통도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격하게 사용될 때 진정으로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돌리면 예술은 쉽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반대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전통이 아니고 수구다.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초스피드 시대가 오늘이다. 전통이 바위라면 현대는 씨앗이다. 최정화는 태고의 반구대 바위에 각인된 그림을 씨앗과 같은 네온이라는 디지털 문명의 빛과 색으로 깨워냈다. 바위에 각인된 호랑이 고래 샤먼의 형태는 물론 추상 문양까지, 특히 대상을 재현하고 내면을 표출해낸 모든 칼질은

인간 문명의 본향이자 모든 언어예술의 원형이다. 여기에다 최정화 작가가 한 일은 어제의 돌과 칼 대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오늘의 전기(電氣)를 잡아들고 바위 속에 잠자던 생명체를 그려낸 것이다. 동시에 이날치가 이 그림을 무대로 무당 고래 호랑이 사슴 멧돼지들과 춤추고 노래하였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장림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누에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 . . . .'

그런대 '범 내려온다'는 그냥 판소리 〈수궁가〉중 하나만이 아니다. 고전(古典)을 씨줄로 힙합 스타일의 현대음악을 날줄로 완전하게 직조/재구성해낸 반복 미학의 결정이다. '지루하다'는 전통소리에 대한 편견도 박진감 넘치는 서양악기와 전통악기의 조합으로 여지없이 깨부수자 전시장은 이내 공연장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전통문화의 느린 변화를 흡수하는 초스피드 시대 창의력의 요체는 이와 같이 정반대의 이질적인 문명/문화와 충돌하면서 서로와 서로를 깨부수며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요컨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간파해내는 일이 예술의 관건이다. 환쟁이 최정화와 소리꾼 이날치가 하나로 만 년 전이나 지금은 물론 만 년 후에도 변할 수 없는 인간 언어의 원형, 즉 '형태(形態)'의 근원으로 되돌아가 오늘날 빛과 소리로' 표현(表現)'해내는 일이 창조력의 결정이 되었다. 보는 이들에게 '뻥'하고 '뻔'하여 오히려 '펀[fun]'한 설치이지만 최정화 작가는 색과 형의 태반에서 놀고 있다. 듣는 이들에게 '힙하디 힙한' 노래이지만 이날치는 판소리의 텍스트는 원형 그대다. 노자도 '되돌아가는 것이 도(道)의 움직임이다(反者道之動)'이라 갈파했다. 더군다나 서화는 물론이지만 소리와 그림마저도 본래부터 한 몸이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에는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문양이 있다(天地自然之聲 必有天地自然之文)'고 적시하고 있다.

기계시대 문자 영상으로 완전무장된 때가 오늘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빠르고 느리고 가깝고 멀고는 물론 익숙한 일상과 낯선 예술의 구분마저 무의미한 문명의 태반(胎盤)으로 돌아갈 일이다. 느리고 빠른 것은 상대적이다. 물리 세계에서는 빠른 것은 빠른 것이고 느린 것은 느린 것이다. 속도는 특정 시간 안에 물체가 얼마만 한 공간을 이동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생각이나 정신의 영역으로 도약하면, 즉 깨달음이나 예술의 장/그라운드에 가서는 빠름도 느림도 무의미하다. 문자영상시대 디지털 기계문명은 일상마저도 더 이상 빠르고 느리고, 멀고 가깝고, 새것과 낡은 것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시공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코로나19시대 비대면의 언택트 문화는 일상의 도시 자체를 아예 텅 빈 정지로 뒤바꿔버렸다. 실존이 가상세계로 뒤 바뀐 것이 오늘날 우리 일상이다. 더구나 광속으로 날아간 화성에서 까마득한 태초의 지구까지 보았다. 이렇게 보면 애초 빠름도 느림도 없다. 어제 오늘 내일 마저도 결국 하나다. 전통이 미래인 것은 역설이 아니라 이제 상식이다. 멀미가 나도록 속도 경쟁에 내몰린 오늘을 구원하는 것은 그 자리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 반구대로 달려가 만년의 꽃을 피워내고 소리를 불러내는 일이다. 스피드 시대의 창의력의 무게나 크기마저도 누가 더 깊이 역사 전통의 심연을 시추하는가에 달려있다.(끝)